

미얀마

◆ 미얀마, 외국인투자 유입 및 원조 도입 여전히 부진

미얀마는 군부에 의한 장기 통치와 이에 따른 가혹한 경제체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타개를 위해 정부 인사 개혁 및 야당인 NLD와의 협상 재개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치범 석방 등 부분적 완화조치로 인해 야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나라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원조 도입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 미흡

미얀마 군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가 작년 말 대규모 정부 인사 단행을 통해 SPDC 인사 1인과 6명의 각료를 축출³⁾한 이후 아직 후속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각료인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SPDC 내의 3대 실력자로 의장 겸 총리인 탄 쉐 장군, 부의장 몽 아예 장군, 제1서기 킨 니운트 장군 등이 모두 유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을 통해 군부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최근 고조되고 있는 투자여건 개선 압력에 대응해 부정협의를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질을 통해 부패적결 의지를 과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SPDC 정권과 군부 사이에 사실상 아무런 구분이 없어 SPDC가 각료 및 주요 군 고위 인사 임명을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정부는 정치개혁 부재에 따른 경제 제재로 인한 타격이 장기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유개발 부문마저 침체에 빠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주변국인 중국 및 베트남에 비해 전략적인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덜 느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對테러전을 진행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우방 확보 차원에서 미얀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NLD와의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는 미지수

지난 2월에는 UN 인권조사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NLD와 SPDC 인사들을 비롯하여 소수민족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치범 석방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금중인 약 1,000여 명의 정치범의 조기 석방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NLD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구체적인 민주화 진전의 부재에 대해 점차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군부가 당 집행위원회의 활동 허용, 양곤 지역 24개 지구당 사무실 집무 허용, 그리고 200여 명의 정치범 석방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미흡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NLD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해제와 구금중인 정치범의 전면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부가 취한 일련의 부분적 민주화 조치를 근본적인 對NLD 관계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SPDC가 최소한의 對야당 관계 유지로 국제사회의 압력가중을 회

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중으로 알려진 민주화 관련 막후 협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알려지고 있지 않으며, SPDC는 일단 향후 2~3년간에 걸쳐 NLD인사와 민간인을 포함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신헌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함께 SPDC는 군부의 집권기반 유지를 위해 향후 입법부의 일부 의석을 군부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PDC는 또한 향후 있을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親군부 단체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1,0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연합발전회의(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 USDA)가 대표적이며, 여기에다 1990년 선거에서 군부를 대표했던 국가연합당(National Unity Party: NUP)도 최근 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표 1〉 미얀마의 주요 동향

일 자	주요 내용
1997. 3.	EU, 미얀마 농산물에 대한 GSP 철회
1997. 7.	미국, 자국기업에 의한 미얀마내 신규투자 전면 금지
1998. 3.	미얀마, 수출입에 대한 규제 조치
2000. 10.	호주의 일부 지방정부, 미국 이외에는 최초로 선별구매법 적용
2001. 1.	SPDC, 아웅산 수지와의 대화 재개
2001. 5.	EU 조사단 미얀마 방문
2001. 11.	부시 행정부, 1997년의 제재조치 연장 결정
2002. 3.	전 독재자 네윈家的 쿠데타 기도 실패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소수민족들도 군부의 억압과 군부 및 NLD간의 협상과정에서 그들의 소외되면서 점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5대 소수민족그룹(Mon, Chin, Karen족 포함)으로 구성된 정당들은 활동이 제한받고 있어 이들은 UN의 주도하에 군부와 휴전 선언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종족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외국인투자 및 원조자금 유입 여전히 부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미국이 1997년에 전면적인 투자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여

기에다 군부의 억압통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여건도 악화되어 1990년대 말 이후 외국인투자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에는 관광호텔 등 관광업을 중심으로, 2000년에는 유전·가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에는 상반기 중에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그 금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0%나 급감한 800만 달러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투자 유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원조 유입도

<표 2>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제 조 업	924	319	20	13	77.4	8
석유·가스	696	172	-	5	47.6	-
부 동 산	624	122	-	-	-	-
운 송 업	48	106	-	-	2.5	-
호 텔 업	114	40	-	16	5.3	-
광 업	178	3	5	19	1.1	-
공단조성·기타	230	15	5	2	-	-
계	2,814	777	30	55	184	8

주 : 회계연도는 4월 1일~3월 31일 기준임.

자료 : EIU, Country Report, 각호.

군부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중단되어 세계은행은 1998년 이후, 아시아개발은행은 1986년 이후 각각 신규지원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국간 원조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신규 지원이 중국 및 일본에 의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점차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500만 달러),

도로 및 전력 개선 사업(65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역시 최근 UN과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들로부터 구체적인 민주화 성과가 있기까지는 미얀마에 대한 자금지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력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鍾虎】